아시아리뷰 제5권 제2호(통권 10호), 2016: 345~362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특별 강연 토론

사회: 임현진(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아시아연구소 창립 소장)
토론자: 권숙인(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원덕(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김병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종원(와세다 대학 아시아 태평양 연구과)

토론 사회: 임현진

하토야마 전 총리께서 긴 시간 동안 진지하게 한일관계의 과거를 바라봐주시고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지역공동체를 역설하시며 구체적인 사례에 입각해 '문화를 통한 돌파구를 마련하자, 동아시아의회를 만들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동아시아의회는 오키나와에 둘 수도 있고 제주도도 가능하겠다는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되돌아보면 서울대학교에 일본 총리가 방문하신 것은 아마도 하토야마 전 총리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 대학에 흔히 있는 일본문학과가 개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하토야마 전 총리님의 서울대학교 특별강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신 네 분의 패널 선생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두 학과와 사회과학대학에서 전문가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문화, 사회, 정치, 경제, 외교 분야의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권숙인 선생님, 다음은 국민대학교 이원덕 선생님, 다음엔 서울대학교 김병연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일본 와세다 대학의 이종원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략히 토론 진행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 5분 내로 패널 선생님들께서 논평과 질문을 해주시고 그것을 종합해 하토야마 전 총리께서 답변해주시는 방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자 여러분 질문도, 여기 참석해주신 교수, 직원, 학생, 시민 여러분의 질문도 받고 그것에 대한 하토야마 총리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권숙인 선생님을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1: 권숙인

오늘 하토야마 총리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아시아를 우애와 평화에 기초한 열린 공동체, 그리고 특히 유연한 공동체로 만들어가자고 하는 총리님의 비전과 노력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인용하신 것이긴 합니다만, "전쟁 책임에 대해서 패전국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구절을 일본의 주요 정치가로부터 직접 듣는다는 것은 한국 청춘들에게는 놀라움에 가까운 그런 경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본의 보수 정치가들이 과거사 반성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 없음, 혹은 과거를 직시할 용기가 없음"이라고 평가하신 부분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동아시아의 열린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교육, 예술, 문화, 그리고 경제, 환경, 에너지 등 상대적으로 덜 껄끄러운 부분부터 손잡고 협력하여 그것을 통해 공간들을 넓혀 가자고 하시는 제안도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지금은 총리

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유토피아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그러한 총리의 비전이 꼭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패널리스트로서 문화인류학자인 저에게 주어진 역할은 너무 딱딱한 이야기가 아닌, 총리의 인간적인 면모 내지는 사회문화적인 쟁점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역사적인 쟁점이라든지 정치경제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뒤에 다른 패널들께서 질문하시고 토론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두어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서도 언급하셨고, 초두에 임현진 선생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사실 하토야마 총리께서는 일본의 정치가로서는 매우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해외 유학을 하셨고, 공학을 전공하셨고, 게다가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귀국하셔서는 교수 활동을 하시고, 교수로 경력을 쌓아오신 경험까지 있으십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강연 중에 적성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정치를 하는 데, 특히 좋은 정치를 하는 데 어떤 적성과 자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직접 정치를 해보시니까 적성에 잘 맞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역시 앞에서 언급하셨듯이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지만, 현실 정치에서 반지성주의적인 행태를 저희가 종종 목격합니다. 그래서 저도 반지성주의라고 부를 만한 행태를 TV 같은 데서 간혹 목격을 합니다. 그중에는 과거에 한때 친구였던 인사의 얼굴들도 보게 되는데, 그런 광경을 볼 때마다 '아, 역시 정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의 특이한 경력에 비추어서 본인의 경험, 개인적인 경험과 소견에 대해서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리의 특이한 경험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얼마 전에 여장을 하셨던 것으로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장을 하시고 무대에 섰던 사진을 봤는데, 기사에는 패러디 뮤지컬에 출연하셨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뮤지컬에서 미국 최초의 여자 대통령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여장을 하시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좀 달라 보이셨는지' 그걸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청중 중에 학생들도 꽤 많이 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소위 청년 문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오래 전부터 젊은 세대들의 의욕 상실이라든지 혹은 소극적인 태도를 걱정하는 논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동아시아의 청년 세대들 그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총리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아시아의 청년 세대들에게 총리께서 전달하시고 싶은 메시지, 기왕이면 희망적인 메시지 같은 것이 있으면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자 2: 이원덕

오늘 존경하는 하토야마 전 총리를 모시고 이런 강연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 외교를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저에게 자주 던지는 질문들을 요약해서 총리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정치에 관한 얘기인데,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의 정치적 지형은 한 마디로 일강다약(一康多弱) 체제, 즉 아베 총리 혼자 우뚝 서 있고 자민당 내부도 아베 총리의 견제를 받아서 내부의 파벌 세력이 약화되어 있으며 야권은 지리멸렬한 상태입니다.

시민사회도 소위 자정 능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고 비판 기능을 상실한 측면도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아베가 추동이 되어서 일본 사회 자체가 우경화 방향으로, 즉 국가주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진단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최근에 아베 자민당이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을 절대특표율로 보면 30%도 안 됩니다. 즉, 이번 유권자 중 적극적으로 아베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은 3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베 총리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70%나 됩니다.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많은 수의 일본 국민이 반원전을 지지하고, 원전을 가동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안보법제가 통과되었지만, 안보법제를 반대하는 시위나 사회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운동들을 보면 만만찮게 큰 세력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이른바 역사 수정주의적인 노선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비판적인 그룹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래는 2018년까지 아베 총리가 지휘할텐데 2018년 이후에는 아베를 반대하는 반아베, 비자민당 표를 모을 수 있는 야권 연대 또는 야권의 통합 등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정치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베 총리 이후에 포스트아베 시대에는 소위 리버럴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정치 세력이나 시민사회 세력이 결집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이런 결집이 야권 연대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하토야마 총리님의 리더십 아래 2009년 민주당 정권이 수립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베 총리 이후에는 일본 내에서 민주적이고 리버럴한 세력을 결집해 부디 정권 교체를 이뤘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일관계인데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언급해서 상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일관계를 보면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으로 악화되어 있으며 경색 상황이 지나치다고 봅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의 한일관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입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는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계신지, 아니면 상황적이고 리더십에 의한 요인으로 변화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 점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체로 동아시아의 파워 트래디션이 생기고 세력 균형이 유동화되는 현실 속에서, 한일관계가 오히려 1990년대보다 더욱 원심력이 작용하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부가적으로 리더십의 소통이 부재한 상황, 그리고 각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오해와 편견이 지나치게 확산되어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최근의 한일관계 악화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진단을 내리는 것이 좋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 지도층이나 국민이 대일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자 2: 김병연

오늘 발표 참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언급을 하시면서

일본은 TPP에서 탈퇴하고 오히려 한 · 중 · 일 FTA를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이유는 TPP가 미국 중심으로 가는 것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 또 하나가 농업 부문의 희생이 크다는 점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혹시 한 · 중 · 일 FTA와 TPP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일본이 지나치게 미국 일변도로 가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한 · 중 · 일 FTA를 하면서 동시에 TPP를 하는 것은 어떨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또 일본의 시각에서 그리고 하토야마 총리님의 시각에서 보신 한국의 TPP 가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쭤보고 싶은 문제는 북한 문제입니다. 우리 남한 정부를 위시해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이 북한과 6자회담을 했는데, 그동안 6자회담을 개최했던 기억에 따르면 일본은 지나치게 국내적 문제, 다시 말하면 납북자 문제에 집중했기 때문에 6자회담에 큰 촉매재 역할을 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떤 식으로 북한 문제, 예컨대 비핵화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시는지, 또 일본은 어떤 식으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총리님께서 총리를 하실 때 그런 구상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자 3: 이종원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온 이종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선 이런 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강연에 참석해 패널로서 직접 강연을 듣고 질문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그리고 아시아연구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도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강연을 경청했습니다. 깊은 통찰, 그리고 원대한 비전 또 구체적인 계획까지 가진 상당히 체계적인 동아시아 미래 전망에 관한 의미 깊은 강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 같이 일본뿐만이 아니고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많은 정치가가 내향적인 발언들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큰 이야기를 듣을 수 있었다는 것은 저에게

매우 귀중한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상당히 우경화되어 있고 편협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총리님의 말씀은 한국에서는 상상 이상으로, 그리고 일본의 맥락에서 보면 굉장히 용기 있는 발언들입니다.

단순히 역사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것 자체에 관해서도 상당히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부정적인 반발이 많습니다. 오히려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조금 더 이해가 확산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보면 그야말로 상상 이상의 용기 있는 발언이라는 점을 저는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넓은 식견을 가지고 국경을 넘는 용기 있는 발언을 하는 정치가이신데, 본인께서는 정치가를 그만 두셨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국경을 넘는 더 큰 정치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리더십입니다. 유럽에서는 그런 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유럽 전체를 보면서 발언하신 분들이 전후에 많이 나와서 유럽을 하나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가 30년 살고 있는 일본에는 상당히 비관적인 느낌을 가진 정치가가 많지만, 하토야마 전 총리와 같이 국경을 넘는 큰 정치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에 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전히 이런 발언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살고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희망을 느끼면서 특별한 감명을 받으며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에서 공동체가 유토피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일본 또한 한국 주변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가 어떤 큰 기로에 서 있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일상적으로는 일본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우경화되고 오히려 신냉전적인, 대립적이고 내셔널리즘적인 언설들이 확대된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번에 안보법제 같은 경우 그동안 숨어 있었던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평화헌법을 지키려는 사람도 예상보다는 많다는 것, 그리고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의 우경화는 여전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조금 더 일반화해서 말씀드리면 신냉전적인 흐름이 점점 커지는 동아시아이지만, 또 한편에는 여전히 공동체라는 것이 단순한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생활을 되돌아 봐도 한 · 중 · 일이 거의 일체화되는 측면이 한편으로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큰 기로에 서 있다는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총리님의 견해를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체의 큰 비전을 공유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 넘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하토야마 총리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 위협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 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하나의 요인도 중국의 부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한 양국 간의 차이가 감정적인 반박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본에서 실제 이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국 위협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총리께서는 한국만이 아니고 중국에도 여러 번 방문하시면서 지도자분들, 사회 각계 인사들과 많은 접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우경화의 하나의 큰 이유가 되고 있는 중국의 부상, 중국의 위협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또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 차이에 관해서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일본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헤이트 스피치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과거 한때에 비하면 공식적으로는 적지만 여전히 혐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계 마이너리티가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헤이트 스피치에 관해서 한국, 일본뿐만이 아닌, 또는 정부뿐만이 아니고 한국도 더불어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이 문제에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 혹시 그런 것들에 관해서 말씀을 좀 더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의견이 아니고 첨언하는 감상인데, 캠퍼스 아시아를 말씀하셨습니다. 동경대학과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와세다대학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홍보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와 관련된 의미 있는 통계 수치를 알

게 되었습니다. 유럽 통합을 이끈 것이 독일과 프랑스의 협력인데 1963년 엘리제조약이 그 토대를 이루었습니다. 엘리제협력조약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 프로그램이 청소년 교육이었습니다. 13세에서 30세까지의 청소년 학생과 교사 양측 모두 상대방 사회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공부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963년부터 시작되었고, 50년이 지난 2013년이 50주년이었습니다. 그때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50년 동안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인원수가 800만 명이었습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16만 명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인구를 합치면 1억 5,000만 명 정도입니다. 한국과 일본도 합치면 그 정도 인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인구 비율로 보면 한국과 일본도 연간 16만 명 정도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한국과 일본에서의 연간 캠퍼스 아시아는 아직도 백 명, 천 명 단위에 불과합니다. 16만 명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면서 교류한다면 양국의 미래가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포함해서 생각하면 한국, 일본, 중국 인구가 합치면 15억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 중 · 일 간 매년 160만 명이 교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전을 하루빨리 한국과 일본이 실천했으면 좋겠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임현진

네 분 패널 선생님들께서 아주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당장 풀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분은 미래에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정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토야마 총리님께서 네 분 패널리스트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답변: 하토야마

네 분께서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모든 질문에 관해서 백퍼센트의 답변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치가의 적성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이는 제가 생각하기에 정치가가

되어서 국민과 괴리되는 가장 큰 문제는 선거지상주의 또는 장관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위를 지나치게 고집하는 정치가가 국민과 괴리되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정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저는 이러한 정치가 결과적으로 일본에서는 공고한 관료 조직과 결합해서 이른바 행정관료들과 정치의 유착을 초래해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적성은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에게 마음을 쏟는 정치를 정치가들이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적성에 맞는가 하는 것에 관해 말씀드리면, 저는 총리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일들이 겹쳐서 역사의 장난으로 총리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정치가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른바 포스트 지상주의적인 발상을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 벗어날 것인가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적성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논평을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장을 했을 때 사진을 보시면서 불편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가 〈웨스트사이트 스토리〉 뮤지컬에 출연한 것과 관련됩니다. 일본의 사에구사 시게아키(三枝成彰) 선생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가 유행했는데, 이 뮤지컬이 시작된 지 50년 뒤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주인공들이 50년이 흘렀는데도 천국이나 노인요양원 등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어 이 싸움의 끝을 내기 위해 댄스로 결판을 내자는 내용의 코미디를 제작했습니다. 저는 미국 첫 여자 대통령 역할을 맡아서 보기 흉한 여장을 했습니다. 3회 공연을 하면서 조금씩 자기 자신이 여장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화장을 도와주신 분이 "당신은 이번 일로 인생이 바뀌었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아쉽게도 앞으로의 인생이 그리 많이 바뀔 것도 아니고 이번 일을 통해서 여성을 보는 눈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을 느낀 정도였고 여성을 보는 눈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제 스스로는 정말 보기 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취업난에 시달리는 학생들에 관해서는, 일본이 이 부분은 다소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청년층의 빈곤은 분명 한 · 일 공통으로 나타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이 희망적이지 않아 이로 인해 젊은이들의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컴퓨터, IT를 저는 절대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IT 사회가 너무나도 잘 꾸려져 있어서 혼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실제 현실 사회에서 친구 사귀기를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정치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릴 때부터 지나치게 IT화를 진행하면 그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일본 학생들이 최근 해외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한국과 크게 다릅니다. 저는 일본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에 나갔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이른바 캠퍼스 아시아를 유용하게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쉽게 캠퍼스 아시아에까지 이르거나 도달할 수 없습니다. 더욱더 캠퍼스 아시아 구상을 보편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일강다약(一强多弱)인 아베 정권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가장 큰 책임은 제가 만든 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민주당을 탈퇴했기 때문에 비교적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애초에 관료천국에서 국민을 위한 천국을 만들고 싶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스스로 내걸었던 이러한 발상이 언제부터인지 사라져 자민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른바 원자력 시설의 사고가 큰 요인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원전 문제든, 안전보장 문제든 민주당 자체가 대응력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첨예하게는 아베 정권이 추궁당해야 할 시기에 건강 문제에서도, 소비세 문제에서도 충분히 추궁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서 정책적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아베 정권을 더 크게 성장하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산당이 매우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야당 연합도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존의 흐름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변화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젊은이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젊은이들의 움직임 속에서 소위 정치적이지 않은, 정치가가 아닌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나라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한 한 큰 흐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아베 정권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가진 정치의 흐름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서, 민주당이 당을 해산해서라도 그 흐름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일관계가 아직까지 우려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 원인은 리더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본의 국력이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겪으면서 자신감을 잃어가는 시기에 이른바 우경화 경향이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강한 일본을 제가 만들겠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정치가들이 칭찬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강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일본 인근 나라들에게 자신이 더 강하다는 메시지를 제시하는 방식이 선호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방전이 있다면, 일본이 더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경제가 회복되어 자신감을 되찾는다면 한일관계에서도 빠른 속도로 다시 개선될 것입니다. 경제 성장이 회복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국민적 큰 흐름 속에서 혐한(嫌韓)감정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TPP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TPP가 FTA보다 먼저라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TPP의 이른바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은 미국이 신흥국에 대해 강한 메시지를 보낼 때 필요한 것으로, 아직 충분한 법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필요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처럼 성숙한 정치 혹은 국가에 대해 이러한 조항을 내세우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TPP와 FTA가 동시에 성립된다면 기본적으로는 FTA가 더 중시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FTA가 주축이 된다면 TPP가 꼭 표면화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양립 가능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TPP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합의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캐나다 선거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며,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 쉽게 TPP가 대체적인 합의가 아닌, 완전한 합의로 이루어지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도 납북자 문제는 일본 사람들의 의식 속에 상당히 깊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 납북자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하토야마 이치로가 해결해 내지 못한 이산가족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납치와는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와 같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한국도 많은 납치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납북자 문제에만 고집하면 6자회담에서 혼자 보조를 맞출 수 없게 됩니다. 저는 납북자 문제도 협력을 요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문제만 고집해 미사일과 핵 개발 문제에 있어서 일본 혼자 대응이 달라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보조를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6자회담을 조기에 실현시켜 재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총리였던 당시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선생님의 질문입니다만, 중국 위협론은 실제보다 지나치게 확대되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분명 중국의 국방력은 계속 약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GDP 성장률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GDP가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방 예산도 증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가정해 지나치게 확대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위협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이 협력하면서 가능한 한 중국에게도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앞서 일본과 한국이 FTA 문제 등을 추진해 나가는 협조관계를 구축해 한 · 중 · 일 FTA 등을 추진함으로써 현실적인 중국의 위협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헤이트 스피치로 인해 많은 분들, 특히 재일교포분들께 상당한 피해

를 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하고 규제를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동시에 일본 사람들의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떨어진 자신감이 회복되어 간다면 헤이트 스피치는 저절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사회: 임현진

하토야마 총리님 감사합니다. 일본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 하토야마 전 총리님이 상당히 편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 뵈니까 진지하게 말씀하시면서도 숙달하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정치를 굉장히 학구적으로 접근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 여기 나와주신 우리 학생, 직원, 교수 또 시민 여러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회: 신범식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질문지를 받았는데 20여 장 이상의 질문지가 들어왔습니다. 일일이 질문을 드리는 건 불가능해 보이고, 크게 정리를 해보니 동아시아 공동체에 관한 질문, 일본 국내 정치에 관한 질문, 그리고 한 · 일 특히 과거사와 관련된 질문 정도로 크게 분류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질문을 한 가지씩만 드리고자 합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아시아 공동체와 관련된 질문에서는 총리님께서 배타적이지 않은 열린 공동체를 구상하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기존에 있었던 아세안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이라든지 원아시아 구상과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제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회 구성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제안들에 비해서 더 뛰어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과대학 김영철 교수님 외 여러분이 해주신 질문들을 종합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본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 일본의 변화는 국내 정치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 아베 정권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야권 연합정권의 창출이 현실적인 변화의 단안일 것 같습니다. 과연 이를 위한 야권의 전략이나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공산당과의 연립정권 구성 등과 관련된 변화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하사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본 국내 정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준혁님 외 네 분 정도의 질문을 종합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과거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시아여성평화기금이 민간기금으로는 과거사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민간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본 측의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일본은 과연 이 사과를 할 수 있습니까? 또한, 현재 아베 수상이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는 국내 정치적 우려 때문인가요 아니면 사과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인식 때문인가요?

다소 곤란한 질문이 되시겠지만 세 가지 정도 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짧게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하토야마

청중으로부터 상당히 날카로운 세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간결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문들입니다만 가능한 한 짧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기존의 구상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의회 조성의 발상까지 생각해 나가야 하는 시기를 맞이했다고 봅니다. 이 아날로지는 유럽에서 유럽의회, EU 의회가 탄생한 과정으로부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애초에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지 않았던 EU 의회였지만 현재는 상당한 힘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즉, 애당초 동아시아에서 의회를 만들자는 것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분명 아직은 동아시아라는 범위는 유연하고 열린 상태에 있습니다. 국가의 유형 혹은 협력하는 범위를 결정하지 않은 채로 의회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은 어려운 발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 · 중 · 일 정상회담이 열림으로써 한 · 중 · 일 협조관계가 이제서야 다시 시작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항상 어떤 식이든 열린 조직이 존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모여서

논의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나중에 큰 의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처음부터 제한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세안 10개국과 한 · 중 · 일을 포함해 구성원을 20명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먼저 구성원 선정 방식도 각 국가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1년에 몇 번이든 모여서 논의하고, 또 어떤 큰 사건이 발생한다고 판단될 때 미리 의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면 처음에는 큰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점차 그 존재가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아시아의회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변화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정치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베 정권이 큰 변화를 이룰 수 없다면 야당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공상당이 중심이 되는 이른바 야당의 연합정권 구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야당연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일후보를 각각의 선거구에서 선발해 다같이 힘을 합치는 것도 하나의 현실적인 정책으로써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공산당과 현재 민주당 그리고 이른바 유신의 당이 협력해 다시 흐름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정당이 결합하거나 해산하는 것에 대해 국민은 싫증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기대하는 것은 기존 정당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즉 젊은이들이 주축이 되어 정치의 흐름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에 있습니다. 정치의 흐름이라 함은 정당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하는가, 이른바 정책의 깃발을 명확하게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정책의 깃발을 만들고 그 깃발 아래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이 그리고 이러한 시민의 영향을 받아서 정당의 각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흐름을 통해 자민당 정치에 대한 다른 새로운 움직임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제가 1996년 민주당을 창당한 것처럼 깃발을 만들어 깃발 아래 한 사람 한 사람이 협력하여 결집하는 방식을 다시 한 번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7월이 되기 전까지 진행해 어떻게든 현재 아베 정권을 대체할 정권을 다시 한 번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질문해 주신 분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혜가 있으면 꼭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대하고 있겠습니

다.

그리고 역사 문제의 사과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여성평화기금이 과거에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 여성평화기금은 국가 차원에서도 각각 기금을 보냈습니다만, 국가 이상으로 민간 차원에서도 협력해 기금을 모아서 이를 보상사업의 형식으로 시행했습니다. 당연히 당시에는 사과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무라야마 총리의 사과 말씀과 함께 기금을 나누어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좀처럼 각국의 위안부분들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패전국으로서 무한책임을 져야 하고 이는 한국분들이 납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사과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치와 다쓰로 선생님의 마음을 그대로 저는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이 납득해 주실 만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사과라면 사과를 해야 하고, 지난 번에 사과를 받아주실 수 없었던 분들에게 사과를 받아들일 만한 환경을 국가 차원에서 조성하지 않는 한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일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가운데서 접점을 찾아 필요한 것들을 제가 정치가로서 또 행정적으로 확실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 임현진

유엔이 국제 정치,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 오래 전부터 세계 의회 창설 운동이 있었고 실제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연합으로 돌아가면 경제 통합에서 정치 통합을 거쳐 사회 통합으로 가고 있고 경제, 정치를 통합해서 유럽의회를 구성했지만 유로존의 위기와 함께 다시 경제 통합 자체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참고해 두어야 합니다.

아까 하토야마 전 총리님께서 "모든 역사적인 아이디어는 유토피아로 시작됐지만 그러나 실현될 수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미국 인디언들

이 하는 속담을 여기에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꾸면 꿈이 되지만 여러 사람이 꾸면 실현할 수 있다,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같은 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시간 이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학생, 직원, 교수 또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동안 좋은 강연을 해주신 하토야마 전 총리님께 박수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사회: 신범식

이것으로 하토야마 전 총리 특별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이 자리를 빛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패널 여러분, 참석자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